

Design Your Lifestyle 생활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더 커집니다

행복이 가득한 집

happy.designhouse.co.kr

2019 1

블랙으로 인테리어하라, 완벽하게!

친구와 우정을 지키는 방법,

봄여름가을겨울 김중진

셰프들이 만든 맛있는 솔밥 레시피

옛날 입맛, 복고 푸드의 귀환

사람의 무늬를 따라 떠나는

하동기행

세화 작가 6인과 함께한 패션 연하장

트렌드세터들이 꼽은

2019 갖고 싶은 아이템

표지 작가 | 송형노

Organic Style

자연이가득한집



임시특가 ₩10,900



1

달선 새로움, 블랙 레시피

온통 검은색으로 마감한 공간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낀다는 블랙 마니아들의 리빙룸. 주거와 상공간, 클래식과 모던을 넘나들며 다양한 뉘앙스로 개성을 더한 블랙 인테리어를 모았다.

1 먹먹한 아름다움

벨기에 건축 스튜디오 K2A가 설계하고 아르노 마송Arnaud Masson이 디자인한 브뤼셀의 'House WW'는 19세기 주택 두 채를하나의 현대적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한 복원 프로젝트다. 노출 콘크리트를 그대로 살리되 얼룩진 느낌으로 블랙 도장 작업을 한 것이 특징. 이 벽면은 그 자체로 장식이 되어 모던하면서도 빈티지한 분위기가 공존하는 오묘한 공간을 완성했다. 사진 Nicolas Schimp



“블랙은 공간을 차분하게 정돈하기 위해 선택한 컬러입니다. 단, 균일하게 칠하는 대신 일부러 얼룩을 내어 마치 석벽에 바른 듯한 빈티지한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시크하고 차가운 속성을 지닌 블랙을 거꾸로 따뜻하게 해석하고 싶었죠. 옛 건축물에 대한 존중을 담은 것이기도 합니다.” _Oana Crainic(K2A 건축 스튜디오)

2 쿨한 첫인상

따뜻한 느낌의 먹색부터 화이트가 섞인 탁한 블랙, 광택이 도는 선명한 블랙까지, 블랙에도 여러 뉘앙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온통 까만 집에 사는 구자영 씨는 쿨한 느낌의 블랙 인테리어를 원했다. 특히 현관은 집의 첫인상인 만큼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여백을 살리고 벽지와 타일, 페인트까지 모두 질감이 다른 마감재를 활용해 다양한 뉘앙스를 완성했다.